

# 太陽熱주택에서의 蓄熱槽에 대하여

編輯委員會

## 1. 축열조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러 날동안 계속하여 흐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태양열주택에서는 쾌청한 날의 잉여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열을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의 열저장온도는 일반적으로  $32^{\circ}\text{CJ}$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열배분장치를 통하여 축열조로부터  $27^{\circ}\text{C}$  정도의 열이 실내에 공급될 경우에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보조가열 또는 예비가열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태양열주택에서는 축열재(蓄熱材)로서 물이나 자갈을 이용한다. 이것은 열적으로 양호하게 절연된 커다란 용기에 넣어서 사용된다.

태양열 집열판은 열순환 Loop를 축열조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Loop는 축열조 온도보다 집열기의 온도가 높을 때 작동된다. 또한 이 열순환Loop는 저장된 열원의 온도가 집열판에서 얻어지는 온

도보다 높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이 정지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축열조의 크기는 설치되어 있는 집열판의 크기 및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물이나 자갈은 현열에 의해 열을 축열하여 일반적으로 물은 액체형 집열판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자갈은 공기형 집열판에 대해 많이 사용되나 이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 장치도 있다.

최근 축열재로서 응점에서 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화학물질의 잡열을 이용하는 것이 개발되고 있다. 응점이  $24^{\circ}\text{C}$ 로부터  $50^{\circ}\text{C}$  사이에 있는 수화염(Salt hydrates)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변화를 동반하는 태양열 축열재이다. (그림 1 참조)

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며 태양열 집열판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범위 내에 응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프라스틱용기에 담겨져서 그 사이를 공기가 잘 유동되도록 축열조가 제작된다.

일례로 화학물질의 응용점이  $29^{\circ}\text{C}$  라 할 때 이 화학물질 축열조는 내부 축열재가 액체상태로 될 때까지는 집열판에서 공급되는 열을 흡수한다.

Chemical Compound	Melting point ( $^{\circ}\text{F}$ )	Heat of Fusion (Btu/lb)	Density (lb/ft <sup>3</sup> )
Calcium chloride Hexahydrate	CaCl <sub>2</sub> · 6H <sub>2</sub> O	84 - 102	75
Sodium carbonate decahydrate	Na <sub>2</sub> CO <sub>3</sub> · 10H <sub>2</sub> O	90 - 97	106
Disodium phosphate dodecahydrate	Na <sub>2</sub> HPO <sub>4</sub> · 12H <sub>2</sub> O	97	114
Sodium sulfate decahydrate	Na <sub>2</sub> SO <sub>4</sub> · 10H <sub>2</sub> O	88 - 90	108
Sodium thiosulfate pentahydrate	Na <sub>2</sub> S <sub>2</sub> O <sub>3</sub> · 5H <sub>2</sub> O	118 - 120	90
			104

그림 1. 잡열저장에 사용되는 수화염의 성질

화학물질 축열조의 온도를 응점온도 이상으로 올리기 위하여 주위로 부터 흡수하는 열량은 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1^{\circ}\text{C}$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상당히 크며 이 열량을 잠열(latent heat)이라고 한다.

축열조에서 실내로 열이 방출될 때는 축열재의 온도는 다시 응고온도까지 내려가며 이때 축열재의 잠열이 주택 난방에 이용되여 일반적으로 상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축열재에 비하여 많은 열량을 축열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반 축열재와 마찬가지로 현열을 이용하여 축열시킬 수도 있다.

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축열재는 아직 개발중에 있으며 극히 소수의 실험주택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화학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축열에 필요한 면적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이나 자갈에 비해 훨씬 적은 면적만이 필요로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축열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물질의 3일간 축열시키는데 필요한 축열조의 체적을 그림 2에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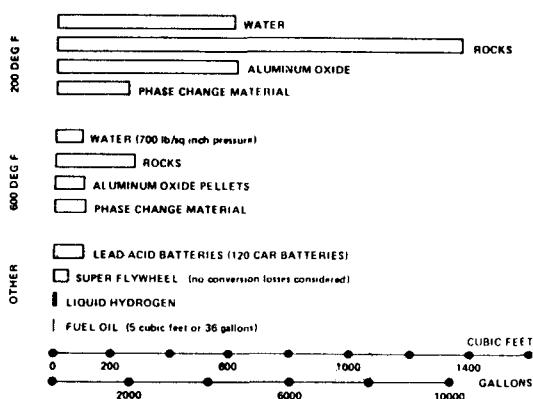


그림 2. 3일간 필요한 열량을 축열하는데 필요한 부피비교 (Solar Dwelling Concepts U. S. Dept. H.U.O.)

만일 태양열을 2일 또는 3일간 저장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축열재로 물을 사용하면 지름 1.8 m 길이 3.6 m의 용기가 필요하나 그와 동일한 열량을 자갈에 저장하려면 이 크기의 2배 또는 3배나 되는 큰 체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수한 기후조건 및 주택설계 그리고 가격을 고려할 경우에 한하여 커다란 축열체적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축열조의 크기는 건물의 설계 및 가격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이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기한동안 충분한 주택난방을 할 수 있는 크기라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태양열주택에 있어서 축열조는 서로 다른 크기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난방이 더 보편화 된다면 어떤 특수한 집열판과 연결해 사용하는 규격화된 축열조가 장치산업 제조자들에 의해 만들어 질것이다.

현재 태양열주택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물 및 자갈을 사용한 축열조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하기로 한다.

#### (1) 물을 축열재로 한 축열조

물은 액체형 태양열 집열판에 대한 축열에 아주 우수하다.

그이유는 값이 싸며 또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태양열장치의 온도범위내에서 안정한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비열이 매우 높으므로 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열량을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물은 태양열 집열판 내를 직접 판을 통하여 흐르거나 또는 축열조 내에 있는 열교환기에 의해 효율적으로 가열될 수 있다. 이와같이 하여 충분히 높은 온도까지 가열된 후 건물내를 난방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열판에서 물을 사용할 때의 결점은 동결과 부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축열조용기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 이점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태양열 축열용 내구성용기는 공장에서 만 들어

져 공급되기도 하나 주택시공시 주택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되기도 한다.

만일 처음부터 태양열난방을 계획한다면 지하실의 한부분이나 기초벽을 축열조로 사용할 수 있게 건축할수 있으며 이때는 방수시공 또는 물을 채울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축열조의 절연을 위하여는 축열조를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이유는 축열조에서 방출되는 열량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물내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물축열조에 대한 계통도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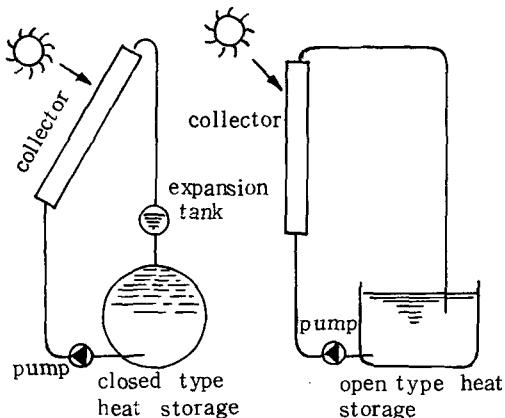


그림 3. 물 축열 시스템

## (2) 자갈을 이용한 축열조

공기형 집열판과 축열조시스템에서는 축열재로 자갈이 이용되는 것이 많으며 집열판에서 가열된 공기는 자갈로 채워져 있는 전열된 축열조용기에 공급되어 저장된다.

공기는 자갈사이를 유동하면서 열을 자갈에 전달하고 다시 냉각된 공기가 집열판으로 흐른다. 이와같은 과정은 축열재의 온도가 집열판에서 공기가 가열되는 온도와 같아질때까지 계속된다.

공기가 자갈사이를 통과할 때의 온도강하는 축열조내의 온도차이를 유발시키며 이의 대표적인 온도분포곡선의 일례를 그림 4에 표시하였다.

축열조에 축열재로 사용되는 자갈의 크기는 축

열조의 체적이나 축열조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공간의 유동거리에 따라 3cm부터 8cm 미만의 것 많이 쓰인다.

작은 자갈을 사용하면 열전달면적이 증대하여 전열효율은 좋아지나 자갈에 의한 압력강하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fan의 동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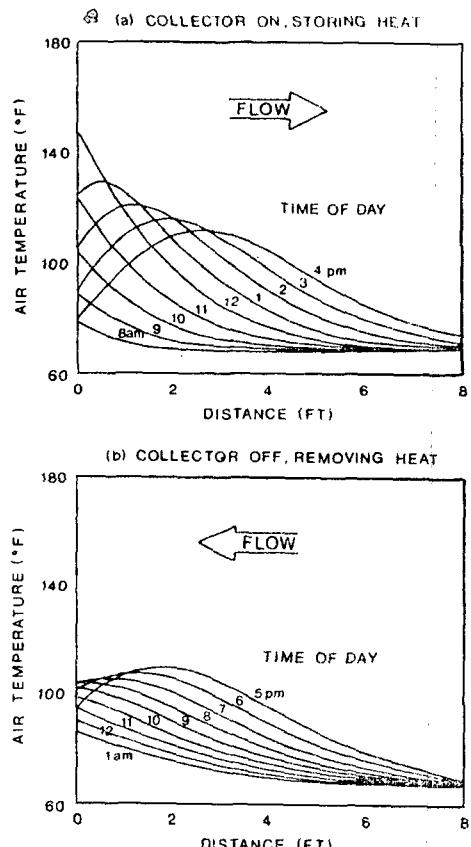


그림 4. 자갈조의 온도분포(Los Alawos Scientific Lab Peport LA-5967)

따라서 자갈을 사용하는 축열조의 크기는 그 지방의 기후조건, 주택의 크기, 난방시스템에 요구되는 공기유량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같은 축열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 2. 축열조의 용량 및 크기

### (1) 축열조의 용량

물이나 자갈을 축열재로 사용할 때 축열조의 체적은 건축물의 면적, 전설 단가, 및 용기의 크기 등 태양열주택의 설계인자들에 의해 제한 받는다. 그러나 지역적인 동계기후조건에 따라 1일간 저장이냐 또는 장시간 저장이냐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축열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주어진 체적의 물이나 자갈에 대하여 저장할 수 있는 열량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부터 대략적으로 계산된다. 즉

$$Kcal\ stored / unit\ volume = Density \times Specific\ heat \times dTS$$

여기서  $dTS$  (Stored temperature difference)란 축열조 설계에서 축열된 후와 방열된 후의 온도 차이를 말한다.

동계에 최대 축열온도가  $65^{\circ}\text{C}$ , 그리고 방열된 후의 온도가  $30^{\circ}\text{C}$ 라면  $dTS$ 는  $65^{\circ}\text{C} - 30^{\circ}\text{C} = 35^{\circ}\text{C}$ 가 된다.

물의 평균 밀도가  $1000 [\text{kg} / \text{m}^3]$ 이며 비열이  $1 [\text{Kcal} / \text{kg}^{\circ}\text{C}]$  이므로

$$\begin{aligned} Kcal\ stored / \text{m}^3 &= 1000 [\text{kg} / \text{m}^3] \times 1 \times dTS \\ &= 1000 dTS [\text{Kcal} / \text{m}^3] \\ &= 35000 [\text{Kcal} / \text{m}^3] \end{aligned}$$

이 된다.

고체 자갈의 평균 밀도가  $2240 [\text{kg} / \text{m}^3]$ 이며 자갈 축열조의 30% 정도를 공기가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자갈 축열조의 평균 밀도는  $1570 [\text{kg} / \text{m}^3]$ 이 된다.

또한 자갈의 바열은 평균  $0.2 \text{ Kcal} / \text{kg}^{\circ}\text{C}$  이므로

$$Kcal\ stored / \text{m}^3 = 1570 [\text{kg} / \text{m}^3] \times 0.2 [\text{Kcal} / \text{kg}^{\circ}\text{C}] \times dTS = 314 dTS$$

가 되어 물을 사용할 경우에 비해 약 3 배의 체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산은 단위 체적의 물이나 자갈의 축열용량을 나타내며 주어진 설계 조건에 따른 축열용량이 결정되면 축열온도차를 가정함으로서 축열조의 축열재 체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9.5 [\text{m}^3]$ 의 물 축열조에서  $dTS$  를

$35 [^{\circ}\text{C}]$  라 하면

$$\begin{aligned} Kcal\ stored &= 9.5 [\text{m}^3] \times 1000 \times dTS \\ &= 9.5 [\text{m}^3] \times 1000 [\text{kg} / \text{m}^3 \cdot ^{\circ}\text{C}] \times 35 [^{\circ}\text{C}] \\ &= 332500 \text{ Kcal} \end{aligned}$$

(2) 저장 시간에 대한 용량 C Carry-Over Capa-City),

주어진 축열조의 체적에 있어 사용 가능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수를 이 축열조의 저장시간이라 말한다.

이는 설계 시에 방열을 고려한 주택 설계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대략적으로 한겨울에 설계 시 방열량의  $1/2$  이 요구된다고 하면

$$\text{Carry-Over [hours]} = \frac{\text{Kcal stored/volume}}{1/2 \times DHL (\text{Kcal/hr})}$$

여기서  $DHL$ 은 설계 시 열손실값을 말한다.

적절한 크기의 주택으로 충분히 단열이 되어 있는 경우  $DHL$ 을  $10,000 [\text{Kcal}/\text{hr}]$ 로 하면 앞의 예로부터  $9.5 [\text{m}^3]$ 의 물 축열조의 경우 저장시간은

$$\begin{aligned} \text{Carry-Over [hours]} &= \frac{9.5 \times 1000 \times 35}{1/2 \times 10,000} \\ &= \frac{332,500}{5000} \approx 66 \text{ hrs} \end{aligned}$$

이 된다.

이와 같은 공식은 또한 축열온도차( $dTS$ )가 다르다든가 또는 저장시간이 다른 값을 요구하는 축열조 계산에 대하여도 똑같이 사용된다.

또한 수동형 태양열주택에 대하여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축열온도차와 밀도, 비열 등의 값을 대입하여 위의 계산방법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Designing and building a solar House" D. Watson Garden way publishing, vermont U. S. A (1977)
2. 日本太陽Energy學會."太陽エネルギー社(1977)